#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 및 결혼 의향

조 희 금(대구대 교수) · 고 선 강(성신여대 부교수) · 어 성 연(중앙대 조교수)

본 연구는 성과 취업을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 결혼계획에 주요한 영향변인으로 보고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평균초혼연령 이상의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하지 않은 이유,의 성차와 결혼의향, 결혼계획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연구하였다. 분석대상을 취업과 직종으로 분류된 5개 집단(전문·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생산·노무직 무직)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 안에서 결혼의향 등에 대한 남녀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의 미혼자 자료 중 본 연구의 대상연령인 28-40세 사이로 한정하였고, 분석표본 수는 814명이다.

미혼 남녀의 일반적인 결혼에 대한 생각은 각 직군별 남녀를 비교한 결과 모든 직군에서 남성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는 비율이 높았으며, 그 차이는 다른 직군과 비교해서 판매·서비스직에서 크게 나타났고, 무직의 남녀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미혼 남녀의 본인의 결혼의향은 전문·사무직, 판매서비스직에서 남녀의 차이를 나타났는데, 이들 직군에서는 남성들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더 높았다. 반면 생산·노무직, 무직은 남녀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남녀의 결혼적령기에 대한 생각은 전문·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무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남녀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들 직군에서 여성이 생각하는 남성의 결혼적령기가 남성이 생각하는 남성의 결혼적령기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성이 생각하는 여성의 결혼적령기는 여성이 생각하는 여성의 결혼적령기 보다 1.5~1.61세 낮게 나타났으며, 약 27세 후반을 결혼적령연령으로 보았다. 미혼 남녀의 배우자의 조건으로 남성은 모든 직군에서 성격, 신뢰와 사랑이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모든 직군에서 성격, 경제력이라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미혼 남녀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남성들은 주로 경제적 이유와 적절한 만남의 기회 부족을 여성들은 적절한 배우자감의 부재,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을 주된 이유라고 답하였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군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미혼 남녀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중 혼외출산, 재혼, 입양에 대해서는 남녀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미혼 남녀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중 이혼에 대한 가치관은 여성들의 긍정 비율이 남성과 비교했을 때 높았으며 직종 별로는 전문·사무직, 생산노무직, 무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혼전 동거, 혼인과 관련 없는 성관계에 대한 가치관은 남성들의 긍정 비율이 여성과 비교했을 때 높았으며, 직종별로는 전문·사무직, 무직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결혼의향, 결혼계획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성, 연령, 직종, 원가족의 이혼관련 경험이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은 결혼의향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고, 결혼계획에는 연령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과 비교하여 높은 결혼의향과 높은 결혼계획 연령을 나타냈다. 즉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결혼 할 생각이 있으나 결혼계획은 나중으로 미루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결혼의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것과 여성이 낮은 결혼의향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요구한다.